

# 목 차

- 003    ●    교육일정
- 005    ●    1마당 :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민간복지의 과제
- 029    ●    2마당 : 2013년 사목교서와 사목지침, 법인 사업방향 이해
- 051    ●    3마당 : 등록단체장과 법인과와의 소통의 시간
- 059    ●    4마당 : 파견미사
- 067    ●    5마당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개



## 교육 일정표

시간	내용	강사/진행
- 10:00	접수	김태환
10:00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민간복지의 과제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00	점심식사	B1 구내식당
13:00	2013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와 사목지침, 법인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	Rev.정성환 (본회 회장)
15:00	등록단체장과 법인과 의 소통의 시간	이민정 (사회복지팀 차장)
17:00	파견미사	Rev.정성환 (본회 회장)



1마당

#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민간복지의 과제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민간복지의 과제

|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

## 21세기 첫 10년 인류의 재앙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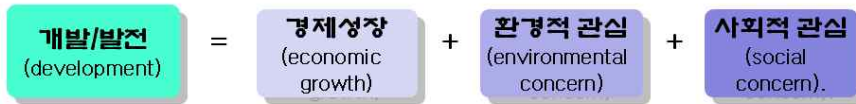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3월 11일  
일본 쓰나미와 강진

## 21세기 “개발” 의 개념(UN)



### <21세기 발전을 위한 선언 내용>

- 개발의 중심으로서 **인간**에 초점을 둔다.
- 개발의 목표를 성장위주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 개발은 반드시 **환경**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을 전체 사회체제 속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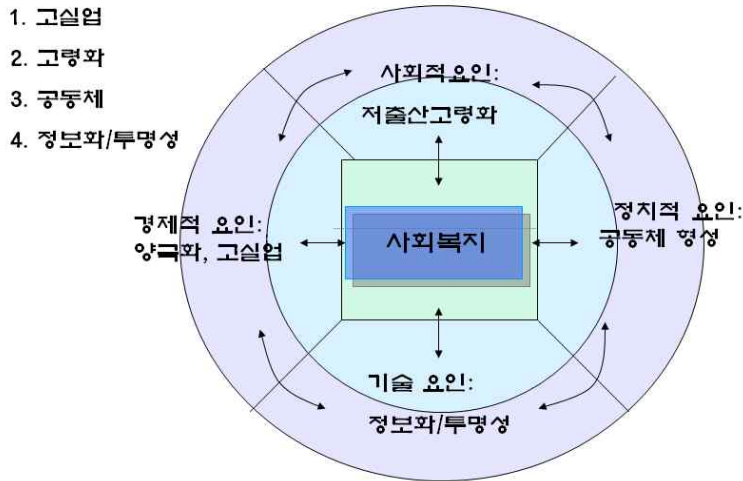
## 21세기 Key Word

### Homo Symbious! 공생적 인간(최재천 교수)

- 악어와 악어새?
- 다른 생물들과 공생관계를 만들어가는 인류
- “섞여야 건강하고, 아름답고, 순수하다”
- 다문화를 통해 인류는 건강한 유전자로 거듭나게 됨
- 통합과 융합은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임
- 공생하지 않은 생물이 살아남은 것은 없다.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존!



## 한국 사회복지 환경 변화



## 한국 복지국가 모형?

1. 고부담(25/55) 고복지?

2. 저부담(15/30) 저복지?

3. 중부담(20/45) 고복지!

보편적 복지인 지속적인 확대와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으로 근로연계복지 실현으로 생산적복지

## 공공지출 변화추이(OECD)

	1980	2009
스웨덴	27.2	27.3
독일	22.1	27.8
프랑스	20.8	32.1
영국	16.5	24.1
일본	10.4	22.4
그리스	10.2	23.9
한국	-	9.4
OECD 평균	16.0	22.1

OECD 주요 국가 공공사회복지지출  
(2009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홈페이지)

## 불평등 지수와 사회복지 예산

	부의 불평등 지수			주요 항목의 예산중구성비(%)					GDP대비 정부예산 (06~09평균)
	지니 계수	근로 빈곤율	노인 빈곤율	국방	경제 개발	보건 의료	교육	사회 복지	
영국	0.34	7	10.3	5.4	10.2	15.8	13.5	33.5	45.3
스웨덴	0.26	6	6.2	2.8	8.2	13.3	13.2	40.7	52.2
덴마크	0.25	5	10.0	2.9	5.2	14.9	13.4	43.3	51.2
프랑스	0.29	7	8.8	3.3	5.4	14.8	11.1	41.4	52.6
핀란드	0.26	7	12.7	3.0	9.5	14.3	12.0	41.3	48.3
캐나다	0.32	12	5.9	2.8	8.6	18.7	18.3	23.3	39.2
일본	0.33	12	22.0	2.5	10.0	20.1	10.5	35.0	36.4
한국	0.32	12	45.1	8.9	21.8	13.0	16.3	12.4	28.8
미국	0.38	15	22.4	11.9	10.6	20.5	16.6	19.4	37.2
OECD평균	0.31	9	13.5	3.8	11.4	14.7	13.1	33.5	40.4

## 복지 저부담 정책기조의 문제점

### A. 성공적인 기전

- 저부담 저복지 → 저비용에 의한 가격경쟁력, 저축과 투자의 증가  
→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성장 → 저부담 저복지의 기반인 일자리 증가와 소득상승(사회문제의 시장적 해결, 세금인하 여력) → 저부담 저복지 지속가능 → ...
- 이 정책의 중심과제는 저축과 투자의 촉진에 의한 경제성장이며, 주문제는 분배의 악화에 의한 사회문제임.

### B. 단점

- 분배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격화, 저축과 투자가 촉진되지 않아 비투자적 투기자본(idle money) 형성 등 약점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이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 못하는 경우에 발생함
- 예: 사회갈등이 주문제가 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한 국가

## 한국적 복지국가 모형: 활력적 복지

- 1) 중부담 수준: 매년 25조내외의 복지재원 추가 확보를 통해 향후 15년 내 OECD 평균 복지국가 진입
- 2) 중부담으로 고복지 실현 가능성
  - 우수한 인력
  - IT를 통한 효율성 강화
  - 시민의 나눔문화 활성화
  - 종교의 사회복지적 기능 강화
- 3) 활력적 복지
  - 복지 의존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연계복지
  -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네트워킹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지역공동체 구축

## 사회복지 변화 방향: 협력과 공공성 강화

- 1) 시장진화성 → 공공성
- 2) 잔여적 복지 → 보편적 복지
- 3) 긴축재정 → 복지재정확대
- 4) 민간중심 → 민관협력
- 5) 분립 → 네트워크

## 민간복지 방향: 정보화 융합 + 공동체

### 1) 융합(Fusion)

- 이종분야의 기술, 학문, 제품, 산업 등이 서로 섞이는 현상과 활동
- 가전, 통신기기 등 주력 IT제조업이 성장한계에 직면
- 기술, 제품, 서비스, 산업간 융합을 국가경제를 견인할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 사례: IT + 자동차 = 지능형 자동차, IT + 전화 = 스마트폰

### 2) 복지분야의 융복합

- 보건 + 복지: 보건복지사무소
- 고용 + 복지: 일자리 복지
- 문화 + 복지: 문화복지, 디문화
- 교육 + 복지: 평생교육
- 기업 + 복지: 사회적기업
- 환경 + 복지: 친환경복지

## 향후 민간사회복지현장 영향 요인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방향
-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
- 사회복지시설 최저기준안
-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투입
- 사회복지서비스관리감독원 설립?

## 지역 복지공동체 구축 과제

- 1)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충: 평생교육과 복지, 일자리의 연계
- 2) 통합적인 네트워킹 체계 활성화
- 3) 문화와 복지의 융합적 지원
- 4) 기업, 종교계의 민간자원 발굴
- 5) 지역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축

## (1)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Workfare

정지, 경제적 위기의식의 점점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 확대

→ IMF이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의 성장 속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양극화와 계층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

→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로 다가왔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음

→ 늘어난 복지수요에 속에서 정부재원을 통한 사회복지 확충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정부의 고민의 점점 속에서 우리사회의 대안적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대함

##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

정책 아젠다로서의  
사회적 기업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지역밀착형



##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 ◆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정책의 확대

→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한 정책의 확대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 예상. 사회서비스 부문에 진출을 꾀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정책적 고용창출 가능 (실제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창출 매우 높음)

###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주체의 다양화

→ 과거 일자리 사업들이 건설, 단순노무 등 제한된 영역의 최소한의 일자였던 반면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보다 다양화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자리의 공급측면에서 보다 가능성이 있음

## (2) 통합적인 네트워크 체계 강화

### <지역복지의 동향: 자활과 네트워킹 강조>

- 최근의 지역복지 동향은 정상화의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중심의 대인 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지역복지를 위한 전략들은 오히려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특히 축소된 예산으로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은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조집단을 조직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역사회 집단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체계까지 재편하는 결과를 낳아 지역복지사업의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간의 협력체계(partnership)의 구축**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우리나라 지역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시,군,구 사회복지 공식 조직은 낮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읍,면,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정책수립이 미흡
-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은 모든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 쫓기다 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적극적 지원 서비스 제공 미흡.
- 공공,민간 복지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발생

### → 지역사회 네트워킹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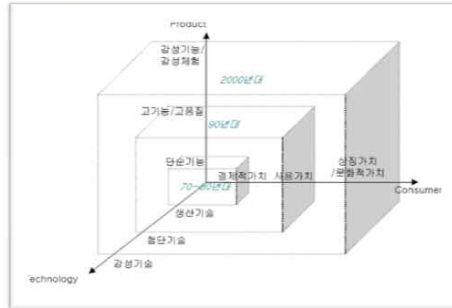
## 통합적 네트워킹의 지역복지 효과

-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다차원적, 종합적 접근
- 2) 자원의 효율적 활용
- 3) 주민 참여 및 자치 실현
- 4)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 5)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



### (3) 문화와 복지의 융합화

#### Why 문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물질적/기술적 힘

→ 감성적/문화적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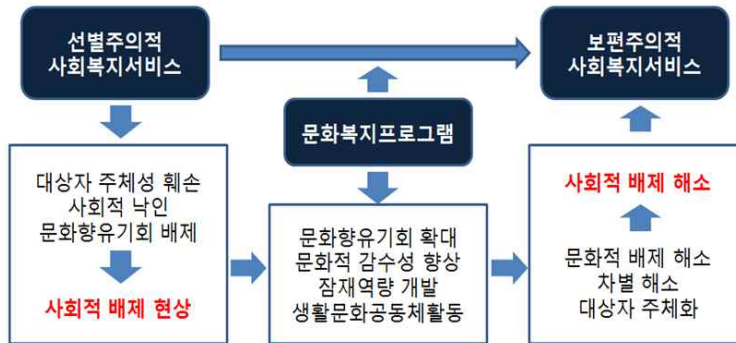
주 5일제의 확산을 기점으로 기업 마케팅의 초점이 '문화'

사회적 메가 트렌드 : 생산, 노동 중심 → 환상, 놀이(Fun) 중심  
(high tech) (high touch)

### 문화복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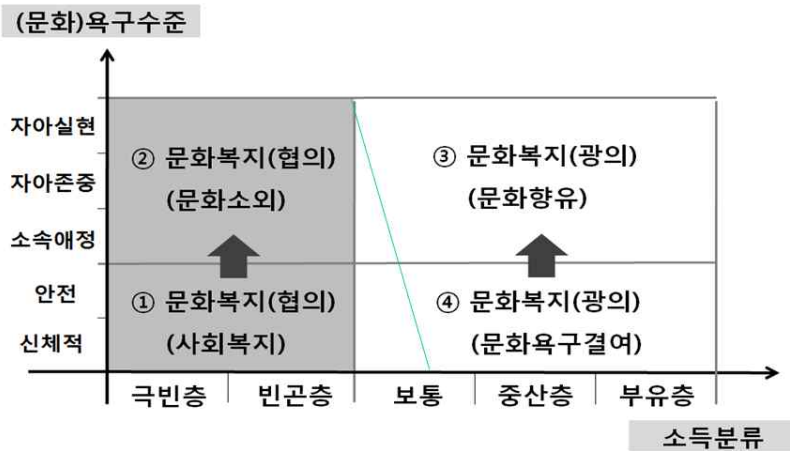
- 1) 지상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강한 욕구  
표출
- 2) 경제가 성장해도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
- 3) 국가적, 사회적으로 창의적 인재 배출 요구
- 4)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문화의 중요성 대두 -  
하드웨어 발전보다 인간의 창조성, 감수성 같은  
휴먼웨어 중요성 대두
- 5) 문화와 경제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인식
- 5)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 문화  
에 대한 향수 고조, 문화예술 창조 욕구 증가
- 6) 문화 소외와 불평등 심화
- 7) 사회복지(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적 지원) +  
정신적, 문화적 복지 = 삶의 질

## 문화복지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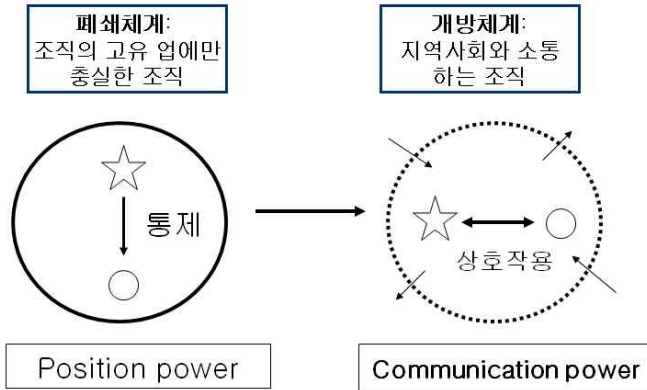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전환구조

## 문화욕구 수준에 따른 문화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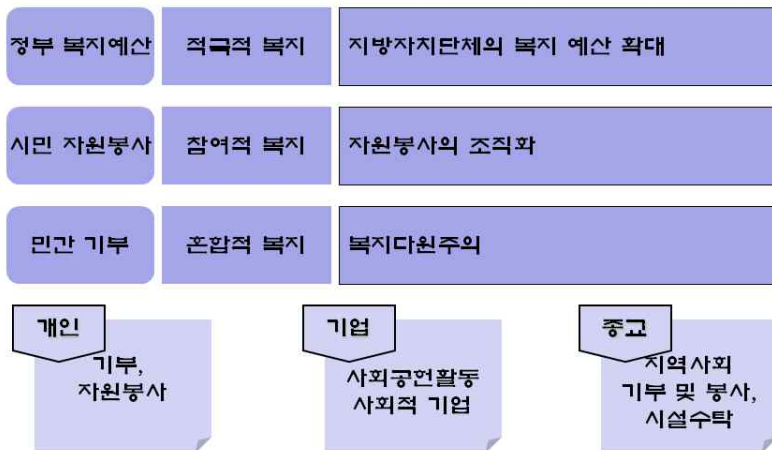


## (4) 기업/종교계의 민간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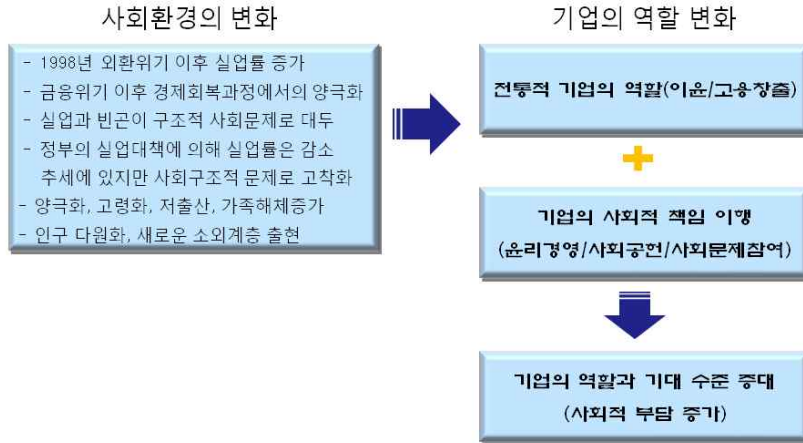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수단으로서의 복지  
(존경 받는 기업/종교 추구)



##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 사회환경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부담 증가



## 기업 사회공헌의 흐름

	제 1 물결	제 2 물결	제 3 물결
Rationale	기부	전략적 기부/사회공헌	지역사회투자
Management	임시관리자	조직화된 관리자	전문기업가 통합컨설턴트
Approach	수동적	목표분야에 반응	주도적
	회장의 기분	선택적 지역	지역사회 중심
	현금위주	다양한 자원	비즈니스 중심
	일회성	목표이슈 해결에 초점	역량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

## (5) 지역재단의 설립

- ① 공동모금제도의 지속성 강화
- ② 시민재단의 설립 지원
- ③ 지역재단의 설립지원
- ④ 독립재단의 설립 지원
- ⑤ 연합모금의 실시와 확대

## 개인재단과 지역재단 (미국)

구 분	개인재단	지역재단
창설과정	법인 조직으로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법적비용 및 회계비용을 많이 부담. (3-4개월 창설기간)	fund를 만드는데 비용 들지 않음. 하루면 기부자 이름으로 된 Fund가 만들어짐 (1시간 이내에 만들어짐)
기부금의 세금공제	수입의 30%까지 가능	수입의 50%까지 가능
투자수입과세	투자수입에 2%를 매년 지불해야 함	투자 수입에 관한 세금 없음.
투자감사 회계	재정상 행정상의 서비스를 반드시 실행, 경영 및 독립적 감사시행이 가능해야함	지역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정, 행정상 그 분야 관련 전문가 직원을 고용
기부 지출금 요구	매년 재단의 자산5%를 분배 시키도록 지정	엄청난 규모의 기부금이 생겨도 지출금 지불할 필요 없음

## 지역재단 선호 이유

1.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특정형태의 자선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희망
2. 기부금을 운영할 특정기관이 행정경비 (인건비 포함)등 많은 비용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음
3. 다양한 기부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을 원하고 특정 사용처를 지명했을 지라 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비싼 법률비용 없이 재단의 의사결정 기구에 해 그 사용처가 적절히 수정되기를 원함
4. 사설재단(Private Foundation), 기업 기부자들은 기부 효율성의 극대화를 희망
5. 신속하고 다양하게 기부목적을 달성하고 세제상의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함

## 기부 피라미드: 유형의 중요성

최고 기부: 유산, 부동산, 기금

특별 기부: 개인의 목돈 기부/기업의 지원금

일반 기부: DM, 이벤트 지원, 결연 후원, 기타 일반 후원

## DEFERRED GIVING(기부 약정)

기부 약정은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유가증권, 혹은 가시적 자산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당한 규모의 기부를 하고 싶지만 살아있는 동안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개인
- 남편을 기념하며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고 싶지만 나이트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 자산을 유지하고 싶은 미망인
- 회사를 막 저분한 사업인으로서 특정 해에 대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싶지만 그러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부를 할만큼 현금이 없는 경우
- 50세의 여성으로 회사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그녀의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그녀의 소득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 아버지를 기려서 기부를 하고 싶은 50세의 남자로써 지금 당장 대규모의 기부를 할 현금이 없는 경우
- 상당한 가치를 지녔지만 현재까지 배당금은 없는 주식을 물려받은 여성

## 미국의 기부연금 활용기관

	기부연금 활용기관의 속성			2009년 기부연금 약정 건당 기부금액
	2009년 구성비	2009년 응답수	2004년 응답수	
사립 대학	23.2%	132	151	\$59,167
국립 대학	12.0%	68	95	\$78,548
병원 / 의료관련	16.4%	93	143	\$58,207
사회서비스	5.3%	30	46	\$32,875
예술	1.4%	8	20	\$22,915
환경	1.8%	10	12	\$48,993
종교기관	16.7%	95	155	\$22,879
지역재단	7.9%	45	75	\$55,455
자선단체 서비스제공 영리기관	1.1%	6	7	\$8,571
기타	14.3%	81	119	\$37,903
유효 응답기관수		568	823	\$43,371

자료출처: ACGA 2009 Survey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p11,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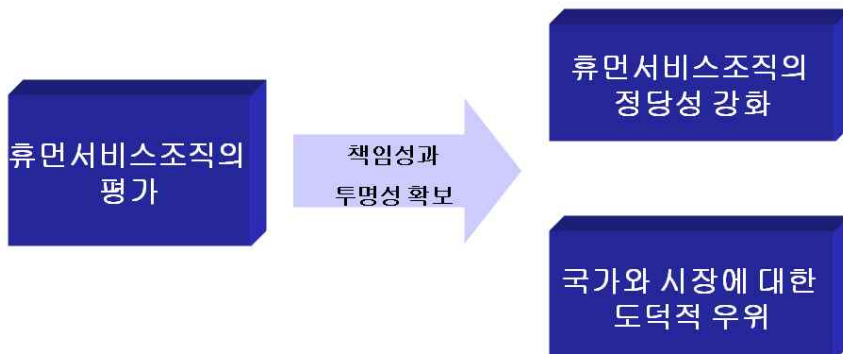




## 사회복지 조직의 과제: 투명성, 효율성

- 1) 책임성과 투명성 요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 사례관리와 자원개발 연계
- 3) 사회복지시설 기능의 재정립 -- 일자리창출
- 4)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활용: 통폐합, 다기능화
- 5) 변화를 조직문화로 승화 - 학습조직
- 6) 새로운 비전과 가치의 창출과 공유

## 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2013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의 특징

- **사전 지표개발 및 지표의 단순화**
  - 2012년 12월 지표 공표
- **자체평가의 사전입력**
  - 자체평가 입력후 7월 지역별 평가 실시
- **확인평가의 충실화**
  - 2013년 9월~10월 편차가 큰 복지관에 대한 확인 평가
- **인센티브 다양화와 품질관리 서비스의 강화**
  - 최우수 시설과 4기 대비 크게 향상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 품질관리 서비스의 내실화

##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 영향요인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6기 평가에 반영)
- ☐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재정 및 서비스의 정보관리 활용
- ☐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공급방식과 신중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출현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간 경쟁의식 확대(이용시설)
- ☐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개선방안 논의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모델 출현 예측
- ☐ 사회복지 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의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의 확산 예상(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 사회복지시설평가 발전방향

- 1) 평가의 전문성 강화: 평가위원의 자격
- 2) 평가의 지속성 유지
- 3) 품질관리서비스 함의 실현
- 4) 프로그램 중심의 평가
- 5) 이용자 중심의 평가



2마당

# 2013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와 사목지침, 법인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 2013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와 사목지침, 법인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

|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

## 2013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신앙의 해 －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2)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로 나아갑시다.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구민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6월 25일 착좌미사로 서울대교구 제14대 교구장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13대 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교구장으로 봉사하게 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 교구의 교구장 직무가 저에게는 너무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느님의 손길에 의탁하고, 우리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협조와 기도에 힘입어서 제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서는 2011년부터 사목교서를 통해 2020년을 전망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자의 교서 「믿음의 문」<sup>1)</sup>을 발표하시면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뜻

을 이어 받아 2013년은 신앙의 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복음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먼저 교회 자신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sup>2)</sup> 교회에 속한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친교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에로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sup>3)</sup> 이러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초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신앙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례 때에 죄와 마귀와 악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응답과 삶이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인지 자주 되돌아보고 성찰하여야 합니다. 순례하는 교회는 늘 자신이 종말의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성실히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2012년에 발간된 『서울대교구 본당사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보고서』<sup>4)</sup>에 따르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sup>5)</sup>

---

1)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 「믿음의 문」, 2011.10.11.

2) 교황 바오로 6세, 교황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2007(3판 2쇄), 15항.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제3판 4쇄), 2항.

4)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대교구 본당사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보고서』, 2012.

5)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에 호감을 갖고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1년 서울대교구의 경우에는 주일미사 참례자들 가운데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입교한 사람들이 약 36%나 됩니다. 다른 한편 매년 거의 입교자의 숫자만큼 냉담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 중에는 이단적 교설에 빠져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신앙에 입문했지만,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말라 버린 것입니다.

2011년 서울대교구의 신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6%인 143만 여명인데,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는 23.7%에 불과합니다. 그들 중에는 50~70대가 약 62%가 넘습니다. 어린 세대가 신앙을 소중히 여기면서 노년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사도 2,47) 얻었습니다. 하지만 ‘허약한 신앙’으로는 자신은 물론 세상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새로운 한 해 동안 합심하여 함께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고, 성경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 교부들은 손으로 성체를 받았을 때 축성된 빵의 한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듯, 전례 중에 듣는 하느님 말씀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sup>6)</sup>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께 대한 숭고한 가르침, 인생에 관한 건전한 지식과 구원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죽음과 부활, 성령의 파견 그리고 사도들의 놀라운 신앙의 증거와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원천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필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합시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석률은 매우 저조합니다(20대 6.6%, 30대 7.4%). 젊은 신자들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들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이들은 10.3%에 불과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이들은 57.4%나 됩니다. 그들 중에서 매일 아침-저녁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28.1%에 불과하고, 거의 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이들이 48.7%에 이릅니다. 또한 약 13%는 고해성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멀리함으로써 자칫하면 신앙생활 자체를 등질 위험성이 큼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신자는 주일미사 참례자들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21항.

니다. 친구간의 우정이 대화를 통해 깊어지듯이 하느님과 우리와의 친교도 기도를 통해 더욱 돈독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였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고, 모세 역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났으며 이스라엘을 구원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으며, 결정적으로 당신의 수난을 통해 성부께서 세우신 사랑의 계획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할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시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기다렸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과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자주 기도함으로써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거룩하게 봉헌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 하고, 삼종기도를 통해 시간을 성화하며, 식사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릴 뿐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회의 가르침을 배웁시다. 하느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이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톨릭 신앙을 알게 되면,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로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해가 시작된 2012년 10월 11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며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반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은 ‘20세기의 교회에 내려진 큰 은총’<sup>7)</sup>이며 순례하는 교회의 방향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

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 20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제1판 2쇄), 57항.

회가 이천년 동안 받아들이고 지키고 제공했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또 신학자들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신앙에 관하여 성찰하고 발전시켜 온 수많은 방법들과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성실히 공부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미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sup>8)</sup>입니다. 미사성제의 은총으로 주님과 일치체를 이루고 신자들 상호간의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미사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빵, 곧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우리는 미사 중에 고백하는 신경(信經)을 통해서도 일치를 이룹니다. 미사 전례에서 사용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는 가톨릭 교회가 이천년간 간직해 온 신앙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미사 중에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시간적으로는 신앙의 선조들과 일치를 이루고,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일치를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은 튼튼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일치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더욱 정성껏 봉헌하기 위해 미사 전에 성실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성체께 대한 공경은 미사 중에는 물론, 미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체를 매우 정성스럽게 보존하고, 합당한 흠숭을 드리기 위하여 현시하거나 또는 장엄한 행렬 중에 함께 모심으로써 공경을 드렸습니다. 성체께 대한 마땅한 흠숭을 드리기 위해 성시간과 성체강복에 자주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행동

---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0항.

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갈라 5,6)이고,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야고 2,17)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앙과 사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sup>9)</sup>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쉽게 좌절되고 맙니다.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고, 사랑의 실천은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소외되거나 배척당한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배척당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당신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라는 초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신앙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다섯 가지 표어로 요약합니다.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3.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4.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2013년 한 해 동안 교구민 모두가 다섯 가지 표어에 따라 신앙의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선사목에서 수고하시는 신부님들께서 신자들 각자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9) 교황 베네딕토 16세, 「믿음의 문」 14항.

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친교가 깊어져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정을 갖고 새롭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주보이시며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의 순교 성인들께  
우리를 위해 전구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2년 대림절에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앙의 기초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아래의 교구 지침을 본당과 지구, 수도회 및 각 교회기관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본당에서는 「신앙의 해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다섯 가지 표어에 따라서 사목계획을 수립하여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필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아침·저녁 기도, 삼종기도, 식사 전·후 기도 등 기본적인 기도를 강조하여 주십시오.

#### 3.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함께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4.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또한 신자 상호간에 일치할 수 있도록, 또한 성체신심의 고양을 위해 성시간과 성체강복을 강조하여 주십시오.

####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일반교육〉

1.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될 ‘자신의 성경 구절’을 갖도록 합니다.
2. 일상의 기도생활(아침·저녁 기도, 삼중기도, 묵주기도, 자비의 기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체험’을 이루도록 합니다.
3.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사도신경’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더욱 깊은 신앙심을 갖도록 합니다.
4.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인지하여 이웃과 후손들에게 ‘신앙 이어주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교전례사목〉

1. 해외 선교와 후원을 위해 사목적 역량을 모아 신앙의 열매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2. 함께하는 여정을 통한 예비신자 교리가 하느님 계시의 내용을 온전히 예비신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들이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실한 준비를 하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냉담 교우 회두에 힘쓰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십시오.
4.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당 차원에서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심생활과 기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례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성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사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가정사목〉

1. 자기 가정의 모습을 성찰하여 가족 관계를 비롯한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 하느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2. 가정기도의 날을 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은총을 청하며,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3. 영적 독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깨닫고, 가정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정하여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한 달에 한 번, 가족 미사의 날을 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성찬례를 통해 일치하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5. 하느님을 중심으로 일치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노인사목〉

1.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중심의 노인 신앙·영성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여 주십시오.
2.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교회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서울대교구 전 본당 노인분과 설치 의무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지구별 노인사목 담당 사제 선임 시 노인사목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지닌 사제를 선임하시어, 지구 노인사목 담당사제와 교구 간 연계가 강화되고 노인사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성서사목〉

1.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독려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쓰기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당이나 지구차원에서 성서교육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의 기초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서사도직 단체들의 성서교육이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 사도직 단체들 간에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사오니 여러 성서공부 프로그램들이 협조적으로 연합하여 교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본당에는 성서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공부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 선포와 실천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사목〉

1. 평신도 (사립)단체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앙의 기초강화를 위하여 ‘신앙의 해’ 다섯 가지 표어를 단체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체의 친교와 고유 카리스마를 지켜감과 동시에 교구, 본당, 타 단체와의 협력과 친교를 통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회 복음화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직 인준 받지 못한 단체는 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사목부를 통해 인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인준 받은 단체는 평협에 가입하여 교구 내 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맺고 서로 협력하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사목〉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맞아 사목의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표현’을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지역, 지구, 본당은 청소년·청년사목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로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뜻을 받들어,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그리스도인의 교육선언 3항)에 따라 각 지역, 지구, 본당의 사목자들께서는 청소년기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육자인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의무를 새삼 깨달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교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다양한 환경과 계층의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청소년사목 협조자와 봉사자들의 양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힘써 주십시오.
3. 본당을 비롯한 교회의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4. 지역, 지구, 본당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과 신앙활동 등 청소년 사목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

새로운 복음화의 실현을 위한 ‘신앙의 해’를 온전히 살아갑시다!

1. 새로운 복음화의 지향은 교회의 자기 복음화와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체험은 교회의 자기 복음화에 큰 보탬이 됩니다.
2. ‘신앙의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신앙이란 하느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고, 그 합당한 응답이란 성실히 신앙

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신앙의 해’ 동안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고, 신앙을 증거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다음을 실천해 주십시오.

1) 신앙 실천 캠페인 “제가 하겠습니다! I Do!”를 지속적으로 펼쳐주십시오.

–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I Do!"

– "단식! 제가 하겠습니다! I Do!"

– "자선! 제가 하겠습니다! I Do!"

2)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사도 2,42; 콜로 2,7)

– 예비신자교리 시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3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리교안이나 그 밖의 자료들을 마련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별 기준에 대해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여 주십시오.

– 견진교리, 신자재교육 시간 또는 사회교리주간을 활용해 사회교리에 대한 교육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 ‘사회교리주간’을 활성화 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3)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사도 2,46; 갈라 5,6; 1코린 13,13)

–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활동 터 주소록을 활용하여 1인 1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신자들이 올바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교육(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과 심화교육(자원봉사활동 터)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봉사활동 전, 후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4) 신앙을 온전히 증거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를 임명하지 않은 지구에서는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를 임명하여 주시고,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들과 각 본당 및 지구 사회사목 분과위원들이 교구 사회사목 각 위원회와 긴밀한 연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홍보국〉

1. ‘신앙의 해’를 맞아 서울주보에 연재되는 ‘가톨릭 교리 해설’, ‘사회 교리’ 등 ‘신앙의 해’ 관련 특집기사에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제공하는 SNS(Twitter, Facebook)와 Podcast 서비스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위 신자 및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국 홈페이지 참조 <http://cc.catholic.or.kr>)
3. 교구 소식을 전하는 교계 언론(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신문 등)을 구독하면서 교회 소식을 알고자 노력합시다. 또한 일반 언론에 나오는 교회 소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위원회〉

1.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고, 신앙을 통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새신을 요청하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각 본당에서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해 생명분과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본당의 생명분과에서는 각 사목(예: 교육과 전례, 단체활동 등)에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수호에 대한 소명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미 생명분과를 설치하신 본당에서는 생명분과 위원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2.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관련 교육과 행사에 본당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본당생명수호담당자들의 양성을 위해 마련된 교구의 생명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3. 각 본당에서는 교회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본당차원의 생명교육과 행사(예: 교회문헌읽기, 생명특강, 참생명학교, 임신부축복식 등)를 추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생명교육(예: 생명피정 및 연수-성 생명 사랑 길)을 실시해 주십시오.

4. 각 본당의 신혼부부, 임신부 등 출산을 계획하거나 예정 중인 신자들이 생명운동의 일환인 제대혈(탯줄혈액) 기증 운동의 동참과 임종에 가까운 교우들이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적극적인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돌봄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평신도들이 서울대교구 내에서 단체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고, 특별히 세상 사물의 질서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소명을 복음 정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동시에 새로이 결성될 단체들에 대한 승인 및 감독과 그 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여타 수도회들의 재속 제3회에 속한 단체들이 갖는 고유 정관을 존중하면서도 서울대교구 내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들에 대한 업무도 다룬다.

**제2조 (평신도 단체의 주된 목적)** 평신도 단체들은 보다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복음화 계획과 신심활동, 그리고 애덕사업, 현세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참조: 평신도 교령 18~21항).

### 제2장 결성 및 인준

**제3조 (단체결성)** 평신도들은 이 규정 제2조에서 제시된 목적을 전제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하느님 나라를 건설,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여 다양한 사도직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지닌다(참조: 교회법 제215조).

**제4조 (가톨릭 및 천주교 명칭사용의 제한)** 단체는 교구장의 인준을 거침으로써 교구 내 가톨릭 단체로 인정되며,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는 ‘가톨릭’이나 ‘천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참조: 교회법 제300조; 평신도교령 24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212조 3항).

### 제5조 (신규단체의 인준신청)

① 인준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각각 3부씩을 사목국 단체사목부에 제출한다:

1. 단체 인준 신청서
2. 회칙(정관)
3. 대표자 및 임원명단(회원수)
4. 조직기구표
5. 연간 활동계획서
6. 단체조직의 경과(활동, 회의록, 재정보고 등)
7. 상기서류들에 대한 담당사제의 의견서

② 접수된 문서들은 교구문서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교구사무처에 일괄 보관된다.

### 제6조(승인심의절차)

① 사목국 단체사목부 사제는 접수된 인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구 사무처는 단체사목부가 제출한 의견서(사목적 차원)와 함께 사무처 고유의 의견서(문서형식적 차원)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신도(사립)단체인준심사위원회(이하 ‘인준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인준심사위원회(위원장: 총대리 주교)는 제출된 인준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주교평의회에 상정한다. 인준심사위원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 교구장은 주교평의회 의견에 참고하여 관련 단체를 승인하고 그 승인교령을 허락한다.

⑤ 신규단체에 대한 최초 인준의 효력은 인준일로부터 3년이며 교구장은 최초 인준 3년 동안의 단체 활동에 대한 다각적 심의를 통해 최종승인 교령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 (회장 및 담당사제 임명권) 결성할 단체들의 회장은 고유정관에 따라 임명되며 담당사제는 교구사제들의 임면절차에 따라 교구장이 임명한다.

제8조 (단체의 정관 개정) 각 단체는 필요에 따라 회칙을 개정할 수 있으나, 회칙 개정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사제의 확인 후 제6조의 심의절차를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① 회칙 개정 인준 신청서
- ② 구회칙
- ③ 개정회칙
- ④ 회칙 개정 대조표
- ⑤ 담당사제 의견서

**제9조 (승인된 단체들의 권리와 의무)** 합법적으로 승인된 단체들은 교회법과 승인된 정관에서 향유하는 권리 및 의무 외에도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① ‘가톨릭’ 혹은 ‘천주교’란 명칭의 사용
- ② 교구 공식 홍보매체를 통한 단체 활동 홍보
- ③ 교구청 직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적합한 신청 및 그 적절한 사용
- ④ 교구 주소록 및 홍보물,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등재
- ⑤ 단체 간 마찰에 대한 교회권위의 중재 요청
- ⑥ 교구와 지구 본당과의 협력관계와 교구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
- ⑦ 제 단체 고유목적달성을 해치지 않는 한, 교구의 여러 활동들에 있어서 협조할 의무
- ⑧ 정해진 양식에 따른 매월 활동 및 재정보고서 제출의무
- ⑨ 연간 활동 계획서, 단체현황, 예·결산 보고서 제출의무
- ⑩ 정기총회 회의록 제출의무
- ⑪ 그 밖의 필요시 교구의 합법적 권위가 요구하는 서류 및 보고서 제출의무

### 제3장 감독 및 후원

#### 제10조 (교구직권자의 감독권)

- ① 모든 단체는 그 고유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고 목적이외의 활동을 통한 남용이 관련단체에 스며들지 않도록 교구직권자의 감독권에 예속된다.
- ② 특히 각 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들은 교구 출판물검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문제없음(nihil obstat)’과 ‘출판승인(imprimatur)’을 서면으로 받은 후 출판 및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단체 재산관리)

- ① 단체의 재산 취득 및 관리는 그 고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나 목적에 적합한 활동에 그 재산이 사용되는가에 대한 감독권은 교구 직권자에게 있다.
- ② 회계와 세무에 대한 사항은 교회법과 국법을 준수하면서 처리되어야 한다.
- ③ 연 1회 교구에 제출되는 단체의 예·결산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 회계장부는 교구 지원금에 대한 예·결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금에 대한 구체적 기안 및 결산을 통한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의 구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단체지원)** 교구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단체는 담당사제와 단체사무부 사제의 의견서 및 예산안을 교구 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고 다음 각 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① 예산이 심의 통과되었어도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무렵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세부내역이 설명되어 있는 기안을 작성함.
- ② 작성된 기안은 담당사제와 단체사무부 사제의 승인을 거친 후 교구 관리국에서 지출 승인 후 집행 가능함.
- ③ 교구 지원금에 대한 결산은 지원금 내역과 관련행사 총 경비 내역을 기록해야 함.

## 제4장 단체의 합병 및 분할과 그 활동의 정지 및 소멸

**제13조 (단체의 합병)** 기존의 여러 단체들이 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된 단체에 대한 승인도 신규단체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단, 기존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책무들도 합병된 단체로 이관되나 고유목적기금이나 목적헌금들을 헌납한 기부자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121조).

**제14조 (단체의 분할)** 기존의 한 단체가 분할하여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규단체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단, 분할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처리는 교회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제15조 (단체활동의 정지 및 소멸)**

- ① 교구 인준 각 단체는 그 고유 정관이 정한 소멸방식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다.
- ② 그 활동이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을 야기할 경우,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교구 직권자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권고와 경고를 내릴 수 있다.
- ③ 교구 직권자들의 권고나 경고를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교구장 주교는 인준심사위원회와 주교평의회 의견 참조하여 단체 활동 정지 및 폐쇄교령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 (소멸된 단체의 재산)** 소멸된 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 교회법 제120조, 제123조, 제320조, 제326조).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교구장이 인준한 날(2009. 10. 26)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관례에 따른다.

3마당.

## 등록단체장과 법인과의 소통의 시간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등록단체장과 법인과의 소통의 시간

## 소통의 시간

총괄진행 : 이민정 안젤라메르치 차장

### ✦ 운영목적

- 1) 가톨릭단체로서의 운영의 어려움
- 2) 교구등록단체로서 교구에 바라는 점
- 3) 교구등록단체로의 역할
- 4) 사회복지회와 연대할 수 있는 부분 논의

### ✦ 모듬구성

이민정	Sr.김경란(안젤라의집), Sr.우경숙(성우회), Sr.김태선(한국틴스타), Sr.최성자(성동종합사회복지관), Sr.오옥순(마자헬로센터), Sr.최지운(까리따스사랑의식당), Sr.심선진(소냐의집), Sr.권말다(중곡종합사회복지관), Sr.오복선(메리워드지역아동센터), Sr.차영자(성모형제의집), Sr.유선애(잠실종합사회복지관), Sr.윤옥순(마드레나자레나의집), Sr.김은옥(성모자애복지관), Sr.박순자(성심효주의집), Sr.남윤자(하상바오로의집), Br.유완희(마리스타지역아동센터)	수도자 (16명)  426-1호
신혜선	김명화(두엄자리), 김주미(한사랑공동체), 강상훈(목동의집), 조성임(새솔지역아동센터), 전영순(파랑새지역아동센터), 박경숙(마음터지역아동센터), 우정원(미리암이주여성센터), 예지연(하늘이네), 송영숙(세실리아의집), 김영숙(요한의집)	10명  708호
이권보	김호식(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허명환(강남장애인복지관), 오옥자(라파엘의집), 김기혜(수선화의집), 김진영(성바오로의집), 이옥정(막달레나의집), 박계숙(개봉동만남의집), 채수경(고척동만남의집), 강경자(젬마의집)	9명  401호

✦ 주제

- 치유를 통한 상호 이해

1. 가톨릭(교구등록단체)운영단체로서의 운영의 어려운 점 또는 도움을 받았던 점

## 2. 교구와의 관계 상에서의 어려운 점/ 교구사회복지회로서의 등록단체와의 관계의 어려움

- 앞으로의 방향

1. 교구(사회복지회)에 바라는 점 / 등록단체에 바라는 점



## 2. 교구 등록단체로서 가톨릭정신으로 운영하기 위한 역할 / 교구의 역할



4마당.

## 파견미사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 파견미사

(녹)연중 제2주간 수요일

| 정성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

입당성가

## 156 한 말씀만 하소서

Labat

*Andante*

*p*

1. 사 랑 의 주 여 주 님 을 모 - 시 기 에 부 당 하 오 나 한 말 - 씬 만 하 소  
 2. 이 성 체 신 은 총 일 치 이 루 - 는 수 기 뽐 연 세 상 죄 날 에 인 에 담 - 을 경 밭 게 되  
 3. 이 크 신 은 총 일 치 이 루 - 는 수 기 뽐 연 세 상 죄 날 에 인 에 담 - 을 경 밭 게 되

*mp*

서 리 내 영 혼 - 이 조 참 게 되 리 - 이 다 성 체 성 혈 로 만 우  
 리 때 과 과 구 - 의 형 상 에 계 기 - 심 까 음 숯 아 주 신 개 지  
 리 게 오 - 시 어 영 원 한 생 - 명 주 - 는 신 - 비 한 사 랑 새 생 명 주 - 신  
 리 게 되 - 오 니 영 원 한 생 - 명 주 - 는 신 - 비 한 사 랑 새 생 명 주 - 신  
 리 게 한 사 - 랑 에 무 단 이 마 음 음 감 - 동 내 되 - 어 주 비 사 오 니 영 성 원 부 명 히 주 - 나 의

*allarg.*

은 - 혜 감 - 사 하 - 리 다  
 - 에 살 - 게 하 - 소 서  
 - 현 반 - 아 주 - 소 서

## 제 1 독서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7,1-3.15-17

형제 여러분, 멜키체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멜키체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10(109),1.2.3.4(◎ 4ㄴㄷ)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 복음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 복음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 221 받아주소서

김영자 작곡, 성 이냐시오 기도

뜻을 마음에 새기며

1. 주 여 나 를 온 전 히 받 아 주 소 서 주 여 나 를 온 전 히  
2. 주 여 나 를 온 전 히 받 아 주 소 서 주 여 나 를 온 전 히

받 아 주 소 서 나 의 모 든 자 유 와 나 의 기 억 과 지 력 나 의  
받 아 주 소 서 내 게 주 신 모 든 것 주 의 것 이 오 니 오 직

의 지 소 유 한 이 모 든 것 을 주 여 당 - 신 - 께 드 나  
주 님 뜻 대 로 처 리 하 소 서 주 당 신 사 랑 은 총 을 나

리 - 리 이 다 이 모 든 것 되 - 돌 려 드 리 오 리 다  
에 게 주 시 면 아 무 것 도 더 - 바 람 없 으 오 리 다



## 성체성가

#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George Beverly Shea

**Moderato**  
*mp*

1.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  
2.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 모든 영예와 행복

도 우 리 를 위 하 여 돌 아 가 신 예 수 의 크 옽 신 사 - 랑 이 하  
도 우 슬 품 과 과 로 여 움 돌 밀 러 와 도 영 수 원 히 주 님 만 의 - 지 하

*mf* *cresc.* *ff* *decresc.* *mp* *cresc.* *f* *decresc.*  
여 세 상 즐 거 움 다 - 버 리 고 세 상 명 예 도 버 렸 네  
리

*mp*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 영성체송

시편 119(118), 4-5 참조

주님,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주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James Mountain

조금 빠르게

1. 내 가 사 랑 반 앓 고 은 총 속 에 산 것 은 성 령  
 2. 주 님 안 의 영 사 영 고 나 의 을 자 그 두 군 가 나 주 는  
 3. 주 님 과 의 사 영 고 나 의 을 자 그 두 군 가 나 주 는

께 모 나 서 님 의 나 과 회 에 로 이 게 움 요 가 말 나 르 리 의 처 사 기 주 라 뵈 셧 지 되 도 도 다 주 향 주 의 상 님 참 주 안 된 께 에 평 바 영 화 라 원

여 면 히 신 기 평 성 심 화 한 자 누 감 평 리 격 없 게 이 되 어 리 주 주 주 나 나 의 의 길 길 이 이 요 요 요 진 진 진 리 리 리

요 요 요 생 생 생 명 명 명 이 이 이 라 라 라

5마당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개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개

## 일반현황

### 1.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Caritas Seoul)

### 2. 설립일자

1976년 9월 27일

### 3. 이사장

김용태 요셉 신부

### 4. 회장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 5.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4층

## 주요연혁

- 1976. 09. 2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 1976. 10.        〈나눔〉 창간호 발행
- 1983. 10.        〈나눔의 전화〉 개설
- 1983. 12. 24    사회복지법인 인가
- 1984. 01.        보건공제부 신설, 보건공제사업 시작

- 1986. 12. 14 「자선의날」 제정
- 1989. 03. 성가정입양원 개원 (국내입양기관 1호)
- 1991. 01. 26 「사회복지주일」 제정
- 1995. 0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수탁
- 1996. 11. 28 설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00. 01.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수탁
- 2000. 05.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수탁
- 2001. 01. 교구 내 사회복지단체 등록제 시행
- 2001. 01. 교구 등록단체 지원사업 실시
- 2001. 9. 26 설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음악회
- 2001. 11.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수탁
- 2003. 04.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
- 2004. 09. 서울카리타스봉사단 발대
- 2005. 10.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수탁
- 2005. 11.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개소
- 2006. 09.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30주년 (30년사 발간)
- 2006. 한끼 100원 나누기 운동 전개
- 2008. 11. 서초노인요양센터 수탁
- 2009. 0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수탁
- 2009. 본당사회사목 지원사업 실시
- 2010. 11. 은평의마을, 은혜로운집, 평화로운집 수탁
- 2010. 12. 양천노인요양센터 수탁
- 2011. 09.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35주년
- 2011. 12. 설립35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12. 01. 이사장 김용태 요셉 신부 부임
- 2012. 0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수탁

## 역대 이사장·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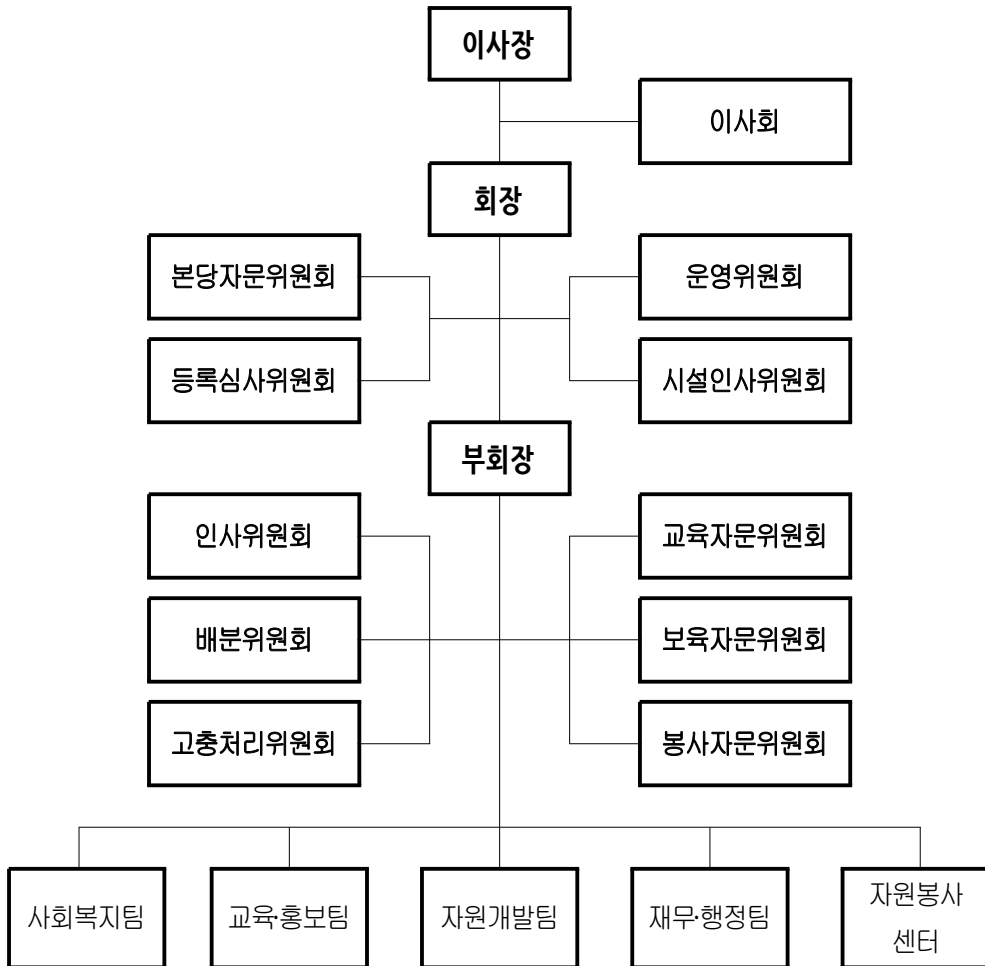
### 이사장

- |                                 |              |
|---------------------------------|--------------|
| ■ 1984. 02. 28. - 1998. 05. 18.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
| ■ 1998. 05. 18. - 2002. 02. 25. |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
| ■ 2002. 02. 26. - 2002. 12. 08. |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  |
| ■ 2002. 12. 08. - 2012. 01. 01. | 김운회 루카 주교    |
| ■ 2012. 01. 01. - 현재            | 김용태 요셉 신부    |

### 회장

- |                         |                 |
|-------------------------|-----------------|
| ■ 1976. 05. - 1982. 09. | 안경렬 토마스아퀴나스 몬시뇰 |
| ■ 1982. 09. - 1992. 02. | 최선웅 야고보 신부      |
| ■ 1992. 02. - 1996. 10. | 이원규 마태오 신부      |
| ■ 1996. 10. - 1999. 03. | 박인선 도미니코 신부     |
| ■ 1999. 03. - 2004. 09. | 김홍진 사도요한 신부     |
| ■ 2004. 09. - 2010. 03. | 김용태 요셉 신부       |
| ■ 2010. 03. - 현재        |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

## 조직도



### ■ 사회복지팀

팀 미션	본당 및 시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교회사회복지의 체계화·전문화 확립
팀 슬로건	자율적 분화와 창조적 융합으로 최적의 성과를 이루자!
주요사업	본당사회사목전문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위기지원사업, 분야별 특화사업·정책연구사업, 직영·수탁·등록단체 운영지원사업, 분야별 역량강화 네트워크사업



## ■ 교육홍보팀

팀 미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사회복지와 함께 하는 교육과 홍보 실현
팀 슬로건	바로 알고, 바로 알리자!
주요사업	직원 교육, 직영·수탁시설·등록단체 종사자 교육, 본당 신자 교육, 연구기획사업, 홍보사업

## ■ 자원개발팀

팀 미션	교회 내 나눔 문화를 선도
팀 슬로건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요사업	일반 모금, 본당 모금, 지역사회 모금, 모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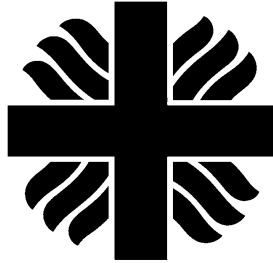
## ■ 재무행정팀

팀 미션	세심한 배려와 섬김으로 무장한 조연배우의 열연으로 주연배우를 오스카상 수상자로
팀 슬로건	1010 운동의 실천 (10분의 아이디어가 10년을 앞선다)
주요사업	회의체 운영, 행정관리, 기본재산 관리, 수탁 관리

## ■ 자원봉사센터

팀 미션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 구현
팀 슬로건	주님 삶 안에서 사랑과 봉사로 응답
주요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교육 및 인력 양성,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운영

## 카리타스의 상징과 의미



카리타스(CARITAS)는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가난하고,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기구를 나타낸다.

- ▶ 네 방향으로 뻗은 붉은색 불꽃과 십자가는 애덕(사랑)을 상징한다.
- ▶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십자가 기둥은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위에서 아래로)과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아래에서 위로)을 의미한다.
- ▶ 좌우로 뻗은 십자가는 하느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웃사랑을 표시한다.
- ▶ 네 방향으로 뻗은 불꽃은 자신을 바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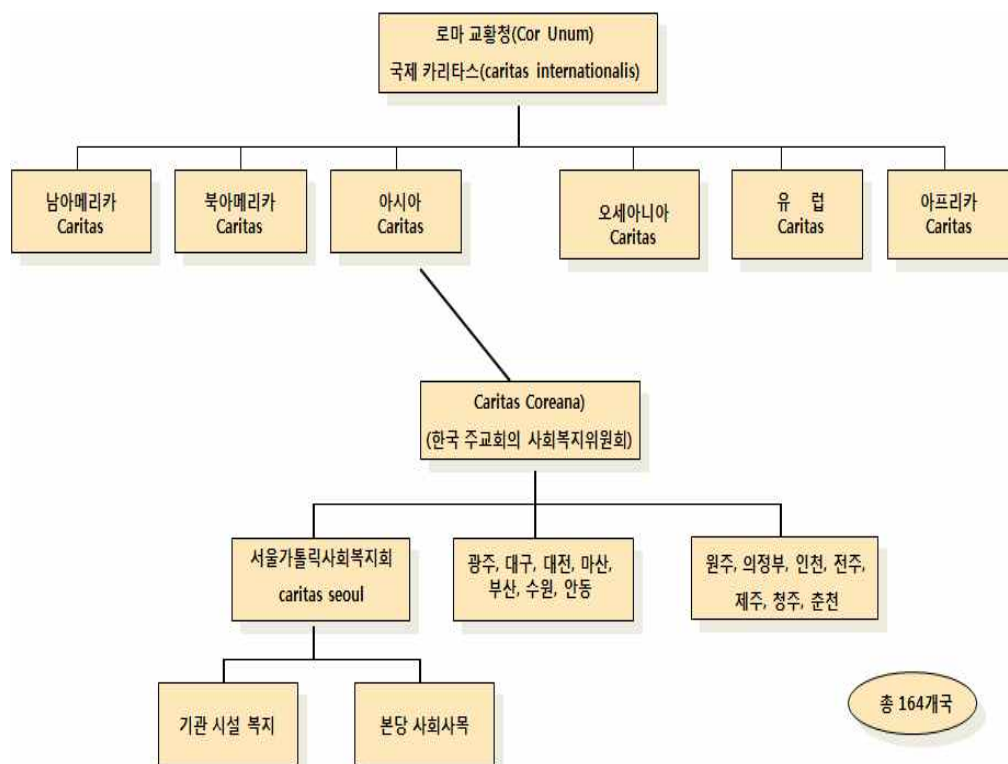
## 전 세계 카리타스

### 국제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

1950년 9월 각국에서 자선구호 활동을 하던 카리타스가 연합체를 만들어 탄생하였으며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사랑실천과 사회정의 구현에 헌신하도록 조직된 기구로 UN 협의 기구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바티칸 시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카리타스는 전 세계 164개국에 카리타스 회원기구를 두고 있다.

## 한국카리타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Koreana)

1976년 국제카리타스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국내 가톨릭사회복지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카리타스 산하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와 14개 지역 사회복지회(국)들이 각 지역 안에서 가톨릭사회복지 활동을 대표하여 협의, 조정, 지원하고 있다.



## MISSION(사명)

복음선포

## MISSION(의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합니다.

습

## VISION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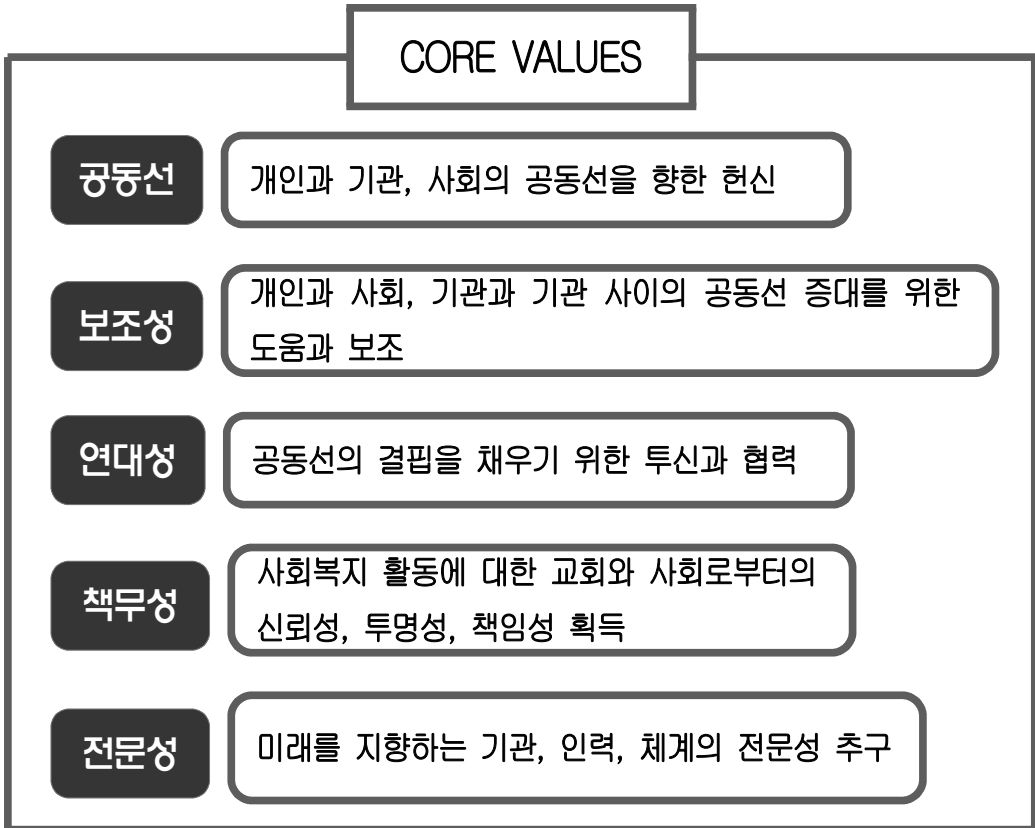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회복지기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 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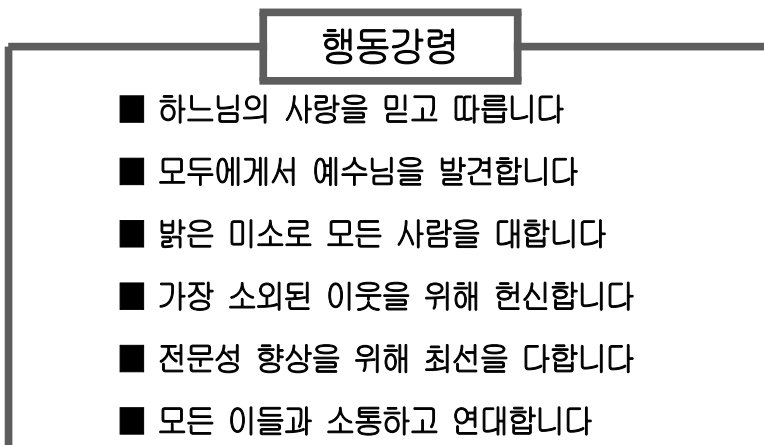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사회복지기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기관

## 핵심가치



## 행동강령



## 등록단체 현황

분 야	수탁 시설	직영 시설	등록 단체	계	분 야	수탁시설	직영시설	등록단체	계
아동복지	24	8	26	58	종합복지	7	-	6	13
청소년복지	1	-	31	32	상담복지	-	-	5	5
장애인복지	7	33	17	57	지역자활센터	4	-	1	5
여성복지	-	5	14	19	푸드마켓	3	-	-	3
노숙인등복지	2	1	7	10	문화복지	-	-	3	3
노인복지	7	1	17	25	봉사단체	-	-	4	4
의료복지	-	3	7	10	기 타	-	-	3	3
합계					52	51	141	244	

## 주요사업

### 1.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사회복지기관

주요시책	중점추진사업	담당 부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또는 공적 안전망에서 보호될 수 없는 개인 및 가정 발굴, 지원</li> <li>- 세부사업 : 아름다운사랑·아름다운나눔, 빨간밥차 운영, 새터민지원사업(선교200주년 장학회 운영)</li> </ul>	사회 복지 팀
가족해체 예방 및 위기 가정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위기상황으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li> <li>- 세부사업 : 장학사업(한가족, 요안나, 성모영보, 말가리다 장학회)</li> </ul>	사회 복지 팀
카리타스 영성에 근거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본당과 시설의 복지사업을 통해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근거한 대상자,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시행</li> <li>- 세부사업 : 빨간밥차 운영, 장애인의날 혼자리축제, 직영보호작업장 공동사업, 화곡푸드마켓 지원사업</li> </ul>	사회 복지 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나눔 운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본회 미션을 공유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 진행 중인 나눔 운동 강화</li> <li>- 세부사업 : 캠페인, 광고, 홈페이지 운영, 나눔소식지, 언론홍보</li> </ul>	교육 홍보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지역사회 자원을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다각화된 모금참여방법 제시, 한끼100원나누기 저금통사업의 내실화, 산하시설과 함께하는 나눔 사업 논의 및 개발</li> <li>- 세부사업 : 중·소 기업 및 신자, 비신자의 기부, 중단/탈회 호점 정리 및 DB 재구축, 네트워크 구성,</li> </ul>	자원 개발 팀

	시설 의견 반영 사업, 자동차기부 보험 산하시설 참여, 산하시설의 급여결전 법인기부 등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구, 봉사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다양한 대상(초등학생, 청소년, 기업봉사자 등)의 교육 연구 및 연계 확대</li> <li>- 세부사업 : 위탁교육의 확대, 강사진을 통한 교육 연구,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한 시설 내 봉사처 발굴 등</li> </ul>	자원 봉사 센터



## 2.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사회복지회

주요시책	중점추진사업	담당 부서
교구지역·본당 간의 사회사목 전달체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교구와 지역 본당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전달체계를 조직함으로써 효율적, 효과적인 지역복지 실천의 기반 마련</li> <li>- 세부사업 : 지구사회사목회 운영 및 활동지원, 본당사회사목 자문위원회 운영, 지구 내 본당과 시설 네트워크 활성화, 본당사회사목분과 활동현황 조사</li> </ul>	사회 복지 팀
본당 소공동체 활동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초대 교회공동체의 모습과 정신을 이어받아 본당내 소공동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친밀한 나눔과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내, 지원</li> <li>- 세부사업 : 본당나눔의날 행사</li> </ul>	사회 복지 팀
본당 및 지역 내 가톨릭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카리타스 영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가톨릭사회복지 인력을 발굴, 양성하여 본당사회사목 전문인력으로 활용 및 시범본당 사회복지 전담인력으로 배치</li> <li>- 세부사업 : 지구사회사목회장단 교육, 본당사회사목 시범본당 운영 및 매뉴얼 작업과 사례발표 등</li> </ul>	사회 복지 팀
지역 내 본당과 사회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본당과 관할 지역 가톨릭사회복지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연대성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가톨릭사회복지 활동의 정체성 확립, 향상 및 전문 인력, 지역자원 공유</li> <li>- 세부사업 : 본당사회사목 프로그램 지원, 지구내 본당과 시설 네트워크 회의</li> </ul>	사회 복지 팀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인식향상과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다양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일반신자와 본당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분리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본당 신자들에 대한 가톨릭사회복지 영성교육 확산</li> <li>- 세부사업 :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사회사목분과장 교육, 구역(반)장 사회복지 특강, 건진교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교육실시</li> </ul>	교육 홍보 팀
본당 내 나눔 문화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 대림절 나눔 활동 강화, 본당방문 나눔 미사를 통한 후원자개발, 본당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모색, 청소년국 하늘마음주보를 통한 나눔 안내</li> <li>- 세부사업 : 사순절, 대림절 저금통 사업, 사업보고 및 후원안내 간지 발행, 본당방문 모금 행사, 본당 사회사목 연계 및 본당 자원 개발, 본회 및 시설 연계 나눔활동 게재</li> </ul>	자원 개발 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향한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본당과 본 센터의 협력을 통한 연대성 강화 및 시스템 사용 확대</li> <li>- 세부사업: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활용 모범본당 발굴, 본당 지역 내 시설 네트워크에 따른 연계(지구네트워크회의와의 연대), 가톨릭적 인정보상제도 기반마련 등</li> </ul>	자원 봉사 센터

### 3. 미래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

주요시책	중점추진사업	담당 부서
교회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교회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전문성,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세부사업 : 등록단체 운영지원, 등록단체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장애인시설 설치 연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록단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직영수탁시설 정기운영점검, 신규·재수탁 추진, CS를 통한 노인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li> </ul>	사회 복지 팀
사회복지 현안에 따른 교회 사회복지의 방향 제시 및 정책 제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정의 참여 및 정책에 따른 각 분야별 사회복지현장의 당면과제와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와 활동 지원</li> <li>- 세부사업 : 가톨릭보육자문위원회 운영, 봉사 및 문화복지단체 운영 지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각 분야별협의회 지원사업 등</li> </ul>	사회 복지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대외활동을 통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정의 참여 및 사회복지현장의 당면과제와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와 참여</li> <li>- 세부사업 : 대외 협력 사업</li> </ul>	교육· 홍보 팀
가톨릭사회복지 영성과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교육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직급에 따라 단계에 따라 교육과정 준비 실시, 영성교육 강화</li> <li>- 세부사업 : 직급별 교육, 카리타스 미션스쿨(가칭), 미션·비전 공유사업</li> </ul>	교육· 홍보 팀
가톨릭사회복지의 내적 쇄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가톨릭사회복지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심포지엄 실시와 교구의 사목지침이 반영된 사업의 실시와 평가의 체계화와 내실화</li> <li>- 세부사업 : 연구조사 사업, 심포지엄, 사업 지원</li> </ul>	교육· 홍보 팀

<p><b>후원처의 만족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배분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후원금/물품 사용 집행, 후원자별 맞춤 예우를 통한 만족도 강화, 후원자별 맞춤 예우를 통한 만족도 강화,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현황 상시 보고, 후원처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li> <li>- 세부사업 : 배분위원회 운영, 소액기부자 및 고액기부자에 따른 세분화,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현황 상시 보고, 후원회 미사, 무료공연 나눔 연계, 소식지 상호소통 강화 등</li> </ul>	<p>자원 개발 팀</p>
<p><b>카리타스 관리자격 프로그램을 통한 교회 전문가 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자원봉사 영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원봉사 강사 및 관리자 양성하여 기본교육 및 위탁교육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li> <li>- 세부사업: 강사양성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사 및 관리자 심의 및 평가, 정기적인 강사전체모임 통한 역량강화 등</li> </ul>	<p>자 원 봉 사 센터</p>
<p><b>영성 중심의 전문강사, 관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b></p>		
<p><b>행정의 내실화도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미비한 행정업무를 재정비, 기본재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 급여규정과 각 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보완하는 등 제 규정정비를 추진하고자 함.</li> <li>- 세부사업 : 기본재산의 관리 현장방문, 기본재산대장 보완, 제규정 정비</li> </ul>	<p>재 무· 행 정 팀</p>

#### 4.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주요시책	중점추진사업	담당 부서
교회 내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 내외의 다양한 협력활동 참여 및 지원</li> <li>- 세부사업 : 실무책임자 정기회의, 아동복지 외 분야별 협의회 지원사업</li> </ul>	사회 복지 팀
교회사회복지 구성원 (신자, 종사자, 수도자 및 사제) 간의 의사소통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교회사회복지 실천 주체인 다양한 신분의 구성원들 간의 이해, 조화, 협력을 통해 보다 민주적, 영성적 사회복지실천 지향</li> <li>- 세부사업 : 분야별협의회 정기회의, 협의회 종사자 연수 지원</li> </ul>	사회 복지 팀
본회 종사자 간의 소속감 및 연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종사자에 대한 소속감 및 연대성 강화 교육</li> <li>- 세부사업 : 신입직원교육, 신규직원수탁시설 교육, 미션·비전 공유사업</li> </ul>	교육 홍보 팀
홍보의 소통 기능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홍보사업의 강화와 객관적 자문과 소통기능 체계화를 위한 조직 운영</li> <li>- 세부사업 :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조직, 홍보자문 운영</li> </ul>	교육 홍보 팀
교회 내, 타종교,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 교회 내외 단체 적극적인 연대활동과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li> <li>- 세부사업 : 협력 기관과의 연대사업,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 외부 기관 연대 네트워크 참여</li> </ul>	교육 홍보 팀
UN 정책(빈곤제로)에 따른 자원봉사 관련 대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 관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국내외 자원봉사 동향에 따른 정보공유 및 연대활동</li> <li>- 세부사업: 자원봉사단체와의 연대강화, 강사 및 자원봉사자 대상 정기적인 정보 제공 등</li> </ul>	자원 봉사 센터
자원봉사자간 모든 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눔문화 확산 및 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자원봉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li> <li>- 세부사업: 강사를 통한 팀장 관리 및 조직화 사업 등</li> </ul>	자원 봉사 센터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안내사항


### 1. 등록단체 연말보고서 제출

1) 내용 : 본회에서는 자원봉사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등록시설의 자료(2012년 연말보고 및 사업보고,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자료를 입력하여 보고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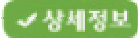
2) 제출시기 : 2013년 1월 15일

※ 미제출 기관을 제출을 서둘러 주세요

3) 제출방법 :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시스템([www.esccvc.or.kr/vtn/register](http://www.esccvc.or.kr/vtn/register)) 등록요원 홈페이지 접속 후 각 기관별 아이디로 접속

① 메뉴에서  **등록단체** 클릭 → **[등록단체 정보 수정]** 클릭

② 화면 중간 **녹색 바탕** 각 영역 확인참조 (6개 영역)

③ 와 는 기존 입력된 내용 확인 및 필요시 수정 요망

④  /  /  /  입력요망

4) 문의 : 사회복지팀 이영주 담당(727-2245)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등록단체는 본회에 위 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 기관방문

1) 목적 : 등록단체로 하여금 가톨릭사회복지단체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등록단체 방문을 통해 격려하고자 합니다.

2) 대상 : 직영·수탁시설 및 등록단체 244개

3) 시기 : 연중 각 시설들과 연락 후에 방문예정

4) 기대효과 : 본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계활동

5) 문의 : 사회복지팀 이영주 담당(727-2245)

### 3. 등록단체 지원사업

- 1) 목적 :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상호 보완적·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2) 대상 : 등록단체
- 3) 시기 및 절차 : 사업설명회(9월) → 신청(10월) → 심사(11월) → 선정 결과 발표(12월)  
→ 사업진행 → 중간보고 → 결과보고
- 4) 문의 : 사회복지팀 이권보 담당관(727-2240)

※ 위의 내용들은 개별 사업 시행 시 별도의 공문 또는 연락이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각 시설로 안내됩니다.

#### 4. 2013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대상 교육일정 안내

교육명	일시	대상	장소	교육비용	비고
등록단체장 교육	1월 23일(수) 10:00 - 18:00	등록단체 단체장 (직영·수탁시설 제외)	가톨릭회관 426-1호	20,000원	
중간관리자 교육	4월 17일(수) 09:00 - 18:00	직영·수탁시설 및 등록단체 중간관리자(약5-9년차)	가톨릭회관 426-1호	20,000원	
등록단체 신입직원교육	3월 20일(수) 10월 24일(목) 09:30 - 18:00	등록단체 입사 1년 이하 신입직원 및 요양센터 입사 1년이하 신입직원	가톨릭회관 426-1호	20,000원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종사자 기초과정)	5월 7일(화)-6월 4일(화) 10월 1일(화)-10월 29일(화) 매주 화 14:00 - 18:00	직영·수탁시설 및 등록단체 종사자	가톨릭회관 426-1호	50,000원	직영·수탁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 의무이수
사회복지 이슈테마 특강	연간 8회 계획	직영·수탁시설 및 등록단체 종사자	장소 미정	15,000원	개별 교육 세부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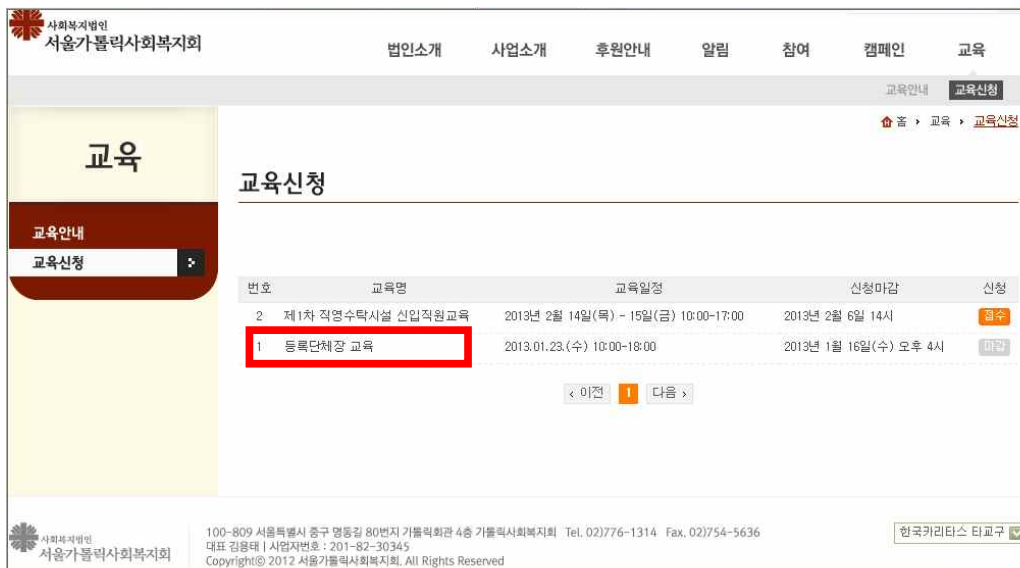
※ 각 교육의 실시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와 이메일, SMS를 통해 각 기관으로 자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정은 본회의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육신청과 관련하여 2013년도부터는 대부분의 교육을 홈페이지 상으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선착순 교육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교육신청의 편리성, 누락 방지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상으로 진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상당 메뉴 가장 우측에 보면 [교육]메뉴가 있고, 그 아래 [교육신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신청]부분을 클릭하세요.



교육 신청 부분에서 원하는 교육의 '교육명'을 클릭하세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파악명 : 교육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보유근거 : 교육수료증 발급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 개인정보파악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성명	<input type="text"/>
기관명	<input type="text"/>
직위(급)	<input type="text"/>
연락처	0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 교육신청 변경 및 취소 시 사용됩니다

교육신청    교육신청수정    목록

내용 하단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교육신청이 안되시므로 동의해주시고, 빈칸이 없도록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신청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오니,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